

재가복지서비스 신청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감 영향 요인*

이 영 휘¹⁾ · 김 화 순²⁾ · 조 인 숙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 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었고 2007년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9.9%로 이 비율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07). 노령화에 따라 발생비율이 증가하는 치매 유병률은 2007년도에 8.3%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7).

다른 질환과 달리 치매노인은 정신적인 증상과 문제행동이 동반되어 노인의 생활과 안전을 위해 돌보는 사람이 항상 노인과 같이 해야만 한다(Fitten, 2006).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체계가 부족하고, 집안의 노인이 아픈 경우 가정에서 돌보는 것을 사회의 미덕으로 생각하여 대부분 치매노인을 가족이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Kim & Lee, 1997; Kim, 1999). 이에 따라 만성적으로 진행하여 서서히 악화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부양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Kim, Kim, Kim, & Seo, 2003).

치매노인 부양자들이 경험하는 부양부담감은 재정적 부담뿐

만 아니라, 신체적 부담, 정신적 부담, 사회활동적 부담 및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와 같은 다차원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Kwon, 1994; Lee & Kim, 2003), 재정적인 지원과 같은 어느 한 차원의 중재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각 차원별로 대상자들이 지각하는 부양부담감의 정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부양부담감 각 차원들과 관련요인 및 영향요인들이 밝혀져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변화가 가능한 또는 중재가 가능한 변수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부양부담감 관련 요인으로는 부양자의 건강과 가족구성원의 도움 정도(Lee, 1998), 부양자와 노인과의 관계, 교육수준, 직업(Cho, Choi, Kwon, & Kim, 2000), 수입(Cho et al., 2000; Lee & Kim, 2003), 경제적 보상(Cho, 2002; Cho et al., 2000), 부양자의 스트레스 대처전략(Kil, 2004),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사회복지시설 이용(Lee, 2006), 및 성별(Lee & Kim, 2003) 등의 변수가 확인되었다. 또한 치매노인과 관련한 변수에서는 일상생활활동 정도(Activity of Daily Living, ADL)와 문제행동(Lee, 2006), 치매노인의 인지기능(Kil, 2004; You, 2001), 성별과 교육수준(Lee et al., 1998) 등의 변수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부양부담감 관련 요인으로 확인된 부양자들의 특성이나 치매노인들의 특성은 연구결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구 월소득과 부양부담감 사이에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그 중 치매노인 전문병원이

주요어 : 치매, 부양자, 피로, 부양부담, 기능상태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khs0618@inha.ac.kr)

3)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접수일: 2008년 5월 1일 1차 수정일: 2008년 5월 21일 2차 수정일: 2008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 2008년 6월 26일

나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통원치료 중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많은 부양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Lee와 Kim (2003)의 연구에서는 월소득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보고된 반면, 가정에서 노인과 동거하며 보살피고 있는 주부양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Ma (1998)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대상 집단의 특성에 따른 결과에서 차이는 부양자의 교육수준과 연령 등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므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한 결과를 기반으로 각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개별적이면서도 여러 차원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치매노인 부양자는 치매노인의 수면시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돌봄으로서 사회적 고립감과 정서적 문제와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다(Kim & Lee, 1997). 주간보호센터나 방문간호서비스와 같은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해 방문한 부양자들이 지각하는 피로는 다른 집단과는 다를 수 있다. 주간보호센터나 방문간호서비스의 경우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부양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로 경감이나 휴식을 위한 보조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센터이용을 위해 방문한 부양자들의 피로 정도는 어떠한지, 이들이 지각하는 피로 정도와 부양부담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그리고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이나 인지기능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부양자의 부담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Kil, 2004; Kim & Lee, 2001; Lee, 2006; Yoo, 2001). 일반적으로 주간보호센터는 주로 경증 치매를 가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능저하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이용을 원하는 노인들의 경우 기능저하 상태는 상대적으로 더 양호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 이용 치매노인의 기능상태 정도와 노인들을 간호하고 있는 주부양자들이 지각하는 부양부담감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집단과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부양자의 일반적 특성과 피로도 그리고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의 기능상태 등의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부양부담감 예측변수를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포함하여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과 관련한 요인을 파악하여 추후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 소재 구 보건소에서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치매노인 주부양자

들이 경험하는 부양부담감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주부양자가 지각하는 부양부담감, 피로 및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의 정도를 조사한다.
- 주부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감에서 차이를 확인한다.
- 치매노인의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감에서 차이를 확인한다.
- 부양부담감, 피로 및 치매노인의 기능상태 정도 사이에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주부양자가 지각하는 부양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의사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고 인천광역시 각 구 보건소에서 위탁 운영 중인 치매센터의 주간보호사업과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내원한 치매노인의 주부양자이다. 대상이 되었던 치매센터는 6개 구인 서구, 동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에 위치한 센터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였고, 98명 중 무응답이 많았던 질문지를 제외한 92명의 치매노인 주부양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주요변수가 3개인 것에 기초하여 90명 이상이 될 때까지 진행하였다(Polit & Beck, 2004).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 각 센터의 기관장에게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 센터의 간호사에게 질문지 첫 장에 게재되어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치매노인의 부양자 중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각 센터 간호사들은 가정으로 전화를 하거나 부양자가 센터를 방문 시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송영서비스나 가족모임 시 질문지를 배포하여 수집하였다.
- 연구자가 각 센터를 방문하여 수집된 자료를 수거하였다.

연구도구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지는 치매노인에 대한 일반적 특성, 주부양자의 일반적 특성 및 부양부담감 척도, 부양자 피로 및 치매노인기능상태 척도로 구성하였다. 주부양자의 일반적 특성에 포함된 휴식시간과 부양의지는 각 1문항의 3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즉, '하루 휴식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부족하다' 1점에서부터 '충분하다' 3점을 배정하였으며, 부양의지 역시 '노인을 부양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의지는 어떠하였습니까?'에 대해 '없었다' 1점부터 '많았다' 3점을 배정하였다.

● 부양부담감

부양부담감이란 고령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부양의 결과로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의미한다(Jung, 2007). 본 연구에서는 Kwon (1994)의 부양부담감 척도로 측정된 점수이다. 부양부담은 6개의 하위차원인 사회활동제한(6문항), 치매노인과 부양자관계의 부정적 변화(7문항),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5문항), 심리적 부담(4문항), 경제적 부담과 경제활동 제약(3문항), 건강상의 부담(3문항)의 총 28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Kwon (199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계수는 .90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946 이었다.

● 피로

피로는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주관적이고 불유쾌한 증상으로 (Tack, 1991) 정의되며, Yoshitake (1978)가 개발한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Kim (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이다. '머리가 무겁다', '몸이 나른하다' 등과 같은 신체적 피로에 대한 10항목, '정신집중이 안된다', '신경이 예민해진 다'와 같은 정신적 피로에 대한 10항목,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 '눈꺼풀이 떨린다'와 같은 신경적 피로에 대한 10항목의 총 30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증상이 있는 경우는 1점,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배정하였으며 점수의 가능 범위는 0-30 점이다. 따라서 각 문항에서 서술하는 피로증상이 있는 것으로 측정된 문항의 수가 많을수록 부양자가 현재 지각하고 있는 피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902였다.

● 치매노인 기능상태

치매노인의 기능상태는 일상생활에서의 역할과 작용을 수행하는데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포함하며(Kim, 2002), Zarit, Todd와 Zarit (1986)가 개발한 도구를 Kim (2002)이 한

국어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지적 기능영역을 측정하는 문항(8문항), 과묵적 행동영역을 측정하는 문항(8문항), 일상생활동작능력(ADL)을 측정하는 문항(6문항), 그리고 도구적 생활동작능력(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IADL)을 측정하는 문항(5문항)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각 문항은 '매우 심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심하다' 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노인의 기능상태 저하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Kim (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34이며, 본 연구에서는 .890이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부양부담감, 피로도 및 기능상태의 정도는 서술적 통계로 분석하였다. 주부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치매노인의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감에서 차이는 t-test와 ANOVA 검증을 하였으며, ANOVA 검증에서 유의한 변수의 경우 Scheffe 사후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부양부담감의 영향 요인 파악을 위해 주부양자가 지각하는 부양부담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피로, 치매노인의 기능상태 및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부양자 특성과 치매노인 특성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성별, 종교, 교육정도, 부양자와의 관계 등의 명목척도의 경우 회귀분석을 위해 새로이 더미변수를 생성하였으며 각 변수를 단계별로 회귀식에 진입하는 단계별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연구 결과

부양부담감, 피로 및 기능상태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주부양자가 느끼는 부양부담감, 피로와 기능상태의 정도는 Table 1과 같다. 전체 부양부담감 점수는 중간 점수인 '보통이다'의 3.0보다 높은 3.39(±0.71)를 나타냈으며, 하위차원 중에서 주부양자의 사회활동제약에 따른 부담의 평균점수가 3.73(±0.78)으로 가장 높았고 심리적 부담의 평균점수가 3.06(±0.98)으로 가장 낮았다. 주부양자들이 경험하는 피로의 총 평균점수는 0.41(±0.24)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신체적 피로의 평균점수가 0.46(±0.27)으로 가장 높았고 신경적 피로 점수는 0.35(±0.26)로 가장 낮았다.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와 관련하여 총 기능상태에 대한 평균점수는 2.95(±0.67)였고, 하위영역에서 인지적 기능 점수가 3.05(±0.77)로 가장 높아 치매노인의 인지적 기능 손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행동영역의 손상 점수가 2.56(±0.85)로 가장 낮았다.

Table 1. Scores for Caregiver Burden, Fatigue, and Functional Status

(N=92)

Variables		M (SD)	Range	Number of Items
Care burden	Social activity restriction	3.73(0.78)	2.00-5.00	6
	Negative change of elder-caregiver relationship	3.43(0.84)	1.43-5.00	7
	Negative change in family relationship	3.13(1.02)	1.20-5.00	5
	Psychological burden	3.06(0.98)	1.25-5.00	4
	Financial and job-related burden	3.31(1.13)	1.00-5.00	3
	Health-related burden	3.57(0.98)	1.00-5.00	2
	Total	3.39(0.71)	2.04-5.00	28
Fatigue	Physical	0.46(0.27)	0.00-1.00	10
	Psychological	0.43(0.29)	0.00-1.00	10
	Neurological	0.35(0.26)	0.00-1.00	10
	Total	0.41(0.24)	0.07-1.00	30
Functional status	Cognitive function	3.05(0.77)	1.25-4.75	8
	Deviation behavior	2.56(0.85)	1.00-4.88	8
	Activity of daily living	2.88(1.00)	1.00-5.00	6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3.47(1.17)	1.00-5.00	5
	Total	2.95(0.67)	1.44-4.48	27

Table 2. Differences in Care Burde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regiver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 (SD)	t, F (p)	Scheffe
Gender	Male	21(22.8)	96.10(21.05)	.051(.960)	
	Female	71(77.2)	94.85(19.61)		
Education ⁺	≤ Elementary school ^a	23(25.6)	102.35(21.15)	4.654(.012)*	a>c
	Middle school ^b	14(15.6)	100.93(19.52)		
	≥ High school ^c	53(58.0)	89.45(17.80)		
Spouse	With spouse	76(82.6)	94.87(19.95)	-.035(.972)	
	Without spouse (divorced, separated, bereaved)	16(16.7)	95.06(18.88)		
Religion	Yes	75(82.4)	93.89(20.14)	2.569(.059)	
	No	16(17.6)	98.56(18.60)		
Relationship with elder ⁺	Spouse ^a	26(28.3)	103.15(20.79)	4.764(.011)*	a>b
	Daughter-in-law ^b	39(42.4)	88.60(17.98)		
	Children ^c	24(26.1)	93.46(17.35)		
Occupation	Yes	34(37.0)	91.65(18.17)	-1.208(.230)	
	No	58(63.0)	96.81(20.66)		
Household Income ⁺ (10,000won)	≤100 ^a	34(40.5)	102.00(19.21)	2.988(.023)*	a>d
	100 - 200 ^b	22(26.2)	96.23(18.35)		
	200 - 300 ^c	14(16.7)	89.14(21.03)		
	300 - 400 ^d	14(16.7)	82.79(10.94)		
Perceived household income	Very insufficient ^a	23(25.0)	108.09(20.67)	8.293(.000)***	a>c,d
	A little insufficient ^b	25(27.2)	98.52(17.85)		
	Not insufficient ^c	34(37.0)	86.47(15.45)		
	Sufficient ^d	10(10.9)	84.20(18.20)		
Help from other family members or neighbors	Yes	41(44.6)	91.66(20.20)	-1.414(.161)	
	No	51(55.4)	97.51(19.34)		
Cost for elder care (won)	300,000	51(55.4)	95.31(22.20)	0.033(.967)	
	300,000-500,000	28(30.4)	94.68(15.72)		
	500,000-1,000,000	13(14.1)	93.77(9.24)		
Amount of rest	Insufficient ^a	51(55.4)	102.47(19.35)	11.319(.000)***	a,b>c
	Moderate ^b	31(33.7)	87.84(17.07)		
	Sufficient ^c	10(10.9)	78.20(10.88)		
Intention to care	None ^a	21(22.8)	105.48(17.41)	8.761(.000)***	a,c>b
	Moderate ^b	24(26.1)	82.92(12.59)		
	Much ^c	47(51.1)	96.30(20.95)		

⁺ Exclude missing value; *p<.05; ***p<.001.

주부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감

주부양자의 평균 연령은 55.95(±12.53)세이었으며, 27세에서 88세까지 분포하였다.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부양자는 여성이 77.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82.6%는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치매노인과의 관계는 며느리가 42.4%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28.3%, 자녀 26.1%의 순이었다. 가정의 월수입은 100만 원 이하가 40.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 상태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의 64.2%를 차지하였다. 치매노인을 돌봄에 있어 본인 이외에 주위 사람의 도움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5.4%로 거의 반수 이상의 대상자가 혼자 치매노인을 돌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식의 정도에서도 55.4%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부양의지를 조사한 결과 많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1.1%를 나타냈다.

주부양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주부양자의 교육수준(F=4.654, p=.012), 치매노인과의 관계(F=4.764, p=.011), 가계월수입(F=2.988, p=.023), 주관적 경제수준(F=8.293, p=.000), 휴식정도(F=11.319, p=.000)와 부양을 하게 되었을 때 부양의지(F=8.761, p=.000)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e 사후 검정에서 학력의 경우 주부양자가 초등 교육도 받지 못한 경우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보다 유의하게 부양부담감 점수가 높았고, 치매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부양부담감이 며느리의 부양부담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가계월수입의 경우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00-400만 원인 집단의 부양부담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부양자들의 건강상태는 0점에서 100점까지 사이의 점수로 표시하는 경우 평균 64.67(±20.47)점 이었고 0점에서 90점까지 분포하였다. 부양자가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부양부담감 사이에 상관계수 r=-.407(p=.000) 이었다. 주부양자가 노인을 돌보기 시작한 기간은 평균 10.13(±13.98)개월이며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8개월의 기간 동안 노인을 돌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돌본 기간과 부양부담감 사이에 상관계수는 r=-.041(p=.698)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자들의 부양부담감

치매노인들의 연령은 60세에서 95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연령은 78.81(±7.85) 세였다.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자들의 부양부담감에서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치매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노인이 전체의 75%로 남자노인 25% 보다 많았고, 교육수준에서는 무학이 50%를 차지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전체의 33%를 차지하였고, 치매 이외의 다른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83.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자들의 부양부담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t=3.061, p=.003), 종교(t=-2.249, p=.027), 현재 배우자 유무(t=2.373, p=.020)였다. 치매노인이 남자인 경우 부양자가 느끼는 부담의 정도가 높았고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사별이나 이혼 및 별거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부양자가 지각하는 부담점수가 더 높았다.

Table 3. Differences in Care Burden of Caregivers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Elders with Dementia (N=92)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 (SD)	t, F (p)
Gender	Male	23(25.0)	105.39(17.87)	3.061(.003)**
	Female	69(75.0)	91.41(19.32)	
Education level	No education	46(50.0)	92.78(20.78)	0.909(.406)
	Elementary school	26(28.3)	94.77(18.86)	
	≥ Middle school	20(21.7)	99.95(18.85)	
Religion	Yes	69(75.0)	95.28(19.99)	-2.249(.027)*
	No	23(25.0)	102.78(17.49)	
Spouse (N=91)	With spouse	30(33.0)	101.80(19.79)	2.373(.020)*
	Without spouse (divorced, separated, bereaved)	61(67.0)	91.51(19.28)	
Number of children [†]	1 - 2	19(21.3)	90.63(16.80)	2.457(.092)
	3 - 5	26(29.2)	102.38(18.65)	
	≥ 6	44(49.4)	93.36(21.12)	
Having other diseases	Yes	77(83.7)	95.32(20.10)	0.461(.646)
	No	15(16.3)	92.73(18.90)	
Number of other diseases	0	14(15.2)	95.79(21.62)	0.575(.565)
	1 - 2	52(56.5)	93.06(19.43)	
	≥ 3	26(28.3)	98.12(20.00)	

[†] Exclude missing value; *p<.05; **p<.01.

부양부담감, 피로 및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와의 상관관계

주부양자의 부양부담과 피로 및 기능상태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양부담감과 피로 사이에는 중간 크기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489, p=.000$)가 있었고, 부양 부담감과 노인의 기능 상태 사이에도 유의한 상관관계($r=.296, p=.004$)를 나타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Care Burden, Fatigue, Functional Status (N=92)

	Care burden	Fatigue
Care burden		
Fatigue	.489 (.000)**	
Functional status	.296 (.004)**	.201 (.057)

** $p<.01$ (two-tailed).

부양부담감 영향요인

치매노인의 특성과 부양자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감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와 함께 피로 및 치매노인의 기능 상태를 독립변수로 하여 부양부담감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변수의 공차한계는 .383 ~ .965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요인 또한 1.177 ~ 1.446으로 나타나 변수들 사이에 다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Lee & Lim, 2005).

치매노인 성별, 치매노인 종교, 치매노인 결혼상태, 부양자 교육정도, 치매노인과의 관계 등의 명목척도의 경우 더미변수로 변경하여 분석하였다.

주부양자의 전체 부양부담감에 가장 영향이 큰 변수는 피로로 부양부담감에 대한 24%의 설명력이 있었고, 그 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인성별, 휴식기간, 부양관계, 기능상태, 및 부양의지로 부양부담감의 약 46%의 설명력을 나타

냈다.

논 의

본 연구는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추후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된 연구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주부양자들이 지각하는 부양부담감의 정도는 척도의 중간 값보다 조금 높은 3.39였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척도의 중간 값보다 조금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었던 것과 일관된 결과이다(Cho, 2002; Lee, 2006). 따라서 부양부담감의 정도에 있어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와 다른 지역 거주 대상 집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위척도에서 사회적 활동제약에 따른 부양부담감이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심리적 부양부담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던 Cho (2002), Lee (2006), Lee와 Kim (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렇게 심리적 부양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던 것은 자식이나 배우자가 당연히 치매노인을 돌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에 따라 노인을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심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이 가진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치매노인 연령, 성별, 종교, 현재 배우자 유무였다. 이 중에서 노인의 성별은 선행연구(Lee, 2002; Lee et al., 1998)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였다. 치매노인의 성별의 경우에는 남자 노인을 보살피는 경우 부양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치매노인이 남자일 경우 전체 부양부담감이 높았고 관계의 부정적 변화 및 가족 구성원 사이에 부정적 변화가 많이 나타났다는 Lee(1998)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치매노인이 남자인 경우 부양자가 느끼는 부담의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주부양자들의 성별에서 77.2%가 여성

Table 5. Multiple Regression Results on Care Burden

Variable	β	B	SE	Adjusted R ²	t (p)	Multi-collinearity	
						Tolerance	VIF
Constant		63.889	7.933		8.054(.000)***		
Fatigue	.301	.798	.241	.236	3.319(.001)**	.790	1.266
Gender of elder: Male	.265	12.314	4.054	.316	3.037(.003)**	.850	1.177
Degree of rest: Insufficient	.192	7.605	3.845	.383	1.978(.051)**	.692	1.446
Relation to elderly: Daughter-in-law	-.188	-7.470	3.507	.409	-2.130(.036)*	.831	1.203
Functional status	.210	.239	.103	.431	2.314(.024)*	.790	1.266
Intention to care: Moderate	-.189	-8.377	3.921	.455	-2.136(.036)**	.828	1.208

* $p<.05$; ** $p<.01$; *** $p<.001$; SE=Standard Error;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 부양자가 성별이 다른 남자 치매노인을 돌보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노인의 연령의 경우, 본 연구에서도 추가분석시에 연령과 부양부담감과의 상관관계수는 $r=-.225$ 로 유의하였지만 매우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노인의 연령을 부양자가 느끼는 부양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부양자의 부양부담감과 치매노인들의 배우자 생존 여부와 관계를 살펴보면 현재 치매노인들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양부담감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부양부담감보다 높았고 치매노인과 현재 주부양자의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 가장 부양부담감이 높았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치매노인의 대부분은 주부양자가 고령의 배우자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추가분석에서 치매노인의 배우자 유무와 주부양자와 노인과의 관계 변수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어($\chi^2=71.437, p=.000$)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양자들이 자신들도 신체적 기능이 노쇠하여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가질 수 있는 고령자이고, 젊은 층의 부양자보다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노출이 적어 치매노인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Lee (2002)의 연구에서 부양자의 연령이 전체 부양부담감과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하위영역의 부양부담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주부양자가 가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부양자 교육정도, 가족수입, 주관적 경제상태, 부양자와 치매노인과의 관계, 휴식정도 및 노인을 부양하게 되었을 때 부양자가 가졌던 부양의지가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부양자의 교육에 따라 신체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의 하위차원에서 차이를 보였고(Cho et al., 2000) 가족 월소득 또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및 신체적 부양부담의 모든 하위차원에서 영향요인(Lee & Kim, 2003)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이 낮을수록 부양자가 지각하는 부양부담감은 더 높았다(Andren & Elmstahl, 2007). 일반적으로 교육정도, 월수입 및 주관적 경제수준은 서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는 변수로 생각되며, 본 연구의 추가분석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월소득이 높았고 주관적 경제수준도 높았다. 따라서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모든 부양자들에게 보통 이상의 부양부담을 발생시키는 힘든 일이지만 특히 교육수준이 낮고 월소득이 적은 부양자들은 우선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노인과 부양자와의 관계에 따른 부양부담감에서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서로 다른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Cho, 2002; Kwon, 1994).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Arai et al., 2004)에서는 배우자, 며느리 및 딸이 느끼는 부양부담감 사이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Cho (2002)의 연구에서는 며느리와 딸이 지각하는 부양부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부담감이 배우자가 지각하는 부양부담감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배우자의 부양부담감이 가장 높았던 Kwon (1994)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시부모를 모시는 것이 며느리의 책임으로 대체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며느리들이 어차피 본인이 해야 할 일로 지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적게 느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휴식시간과 부양부담감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으나 간접적으로 평균 1일 부양시간과 부양부담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족은 부양부담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Cho (2002)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일일 부양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부양분담이 적을수록 부양부담이 높았고, Lee (2006)의 연구에서도 1일 평균부양시간은 총부양부담감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Arai 등(2004)의 연구에서도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와 부양부담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이는 휴식시간이 부족한 경우 부양부담감이 가장 높았던 본 연구와 맥락적으로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부양자들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리라 판단되며, 이미 이러한 목적에서 출발한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전국적 확장과 방문간호서비스의 확대도 주부양자들에게 좀 더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부양부담감소의 주요 중재중 하나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하였던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피로는 중간 정도였고, 신체적 피로가 가장 높았던 반면, 신경적 피로는 낮게 나타났다. Brazel, Bedard와 Willison (2002)은 치매노인 부양자는 치매노인을 돌보느라 육체적인 노동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여 신체적 건강이 악화된다고 하였고, 이러한 과정은 대상자의 신체적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체적 피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치매노인의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치매노인을 돌보느라 육체적인 노동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반면 신경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돌봄 방법의 획득과 노인에 대한 적응으로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Dijkstra, Sipsma, & Dassen, 1999). 따라서 무엇보다도 신체적 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겠다. Kim과 Lee (2001)는 휴식서비스를 위한 재가복지사업의 제공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능 상태에 대한 조사에서 도구적 일상생활정도나 인지기능이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문제행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 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의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치매초기와 경증만을 대상으로 하여 치매에 대한 인지기능의 저하는 있으나 문제행동은 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문제행동점수가 낮게 조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부양부담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부양자 특성과 함께 부양자 피로도 점수,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 및 치매노인 기능상태 점수를 포함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피로, 노인기능상태, 부양의지, 노인성별, 노인과의 관계 및 휴식시간이 유의한 부양부담감 영향변수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ADL과 IADL 및 문제행동을 포함하는 치매노인 기능상태와 휴식시간이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ADL과 문제행동 그리고 휴식시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1일 평균부양시간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Lee (200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 월소득과 부양자 성별은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Lee (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나 가계의 월소득과 부양자 성별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Lee와 Kim (2003)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와의 차이는 월평균 소득이 유의한 영향 변수였던 Lee 와 Kim (2003) 연구와 본 연구 사이에 연구대상자들의 소득분포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월평균소득이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던 Lee와 Kim (2003)의 연구대상자들의 소득 분포는 200-290만원이 31.5%로 가장 많았고, 300-399만원이 22.8% 그리고 400만원 이상이 23.9%였던 반면, 본 연구는 100만원 미만 소득자가 40.51%이며 200만원 미만의 소득자는 26.2%로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낮은 소득경향으로 한국평균 가계소득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생활자가 많아 큰 변별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상과 같이 피로, 노인기능상태, 부양의지, 노인성별, 노인과 부양자와의 관계 및 휴식정도가 유의한 부양부담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치매노인 주부양자가 경험하는 부양부담감 영향요인을 파악하기위해 인천시 소재 6개구 보건소에서 설립 위탁운영중인 주간보호센터와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내원한 치매노인 주부양자 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치매노인의 연령과 부양부담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성별, 종교, 배우자 유무에 따라 부양 부담감은 차이가 있었다.

-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교육수준, 노인과의 관계, 가계 월수입, 주관적 경제수준, 휴식정도, 부양의지에 따라 부양부담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치매노인의 기능상태, 노인의 성별, 부양자 피로, 휴식시간, 부양의지 및 부양자와 노인과의 관계로 나타났고 이러한 변수로 전체변량의 49%를 설명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치매노인을 모시고 있는 부양자의 부양부담은 피로, 노인기능상태, 부양의지, 노인성별, 노인과의 관계 및 휴식시간이 주요 영향요인이었다. 따라서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로를 감소시키며, 노인 기능상태를 유지시키고, 휴식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겠다. 간호분야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내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재가복지시설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고, 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치매가족 교육을 통한 가족 내에서 역할 분담 촉진과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부양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주간보호센터나 방문간호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겠다. 또한 주간보호센터나 방문간호사업 이용에 따른 치매노인 부양자의 피로, 노인기능상태, 휴식효과 등을 확인하고 나아가 부양부담이 감소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References

- Andren, S., & Elmstahl, S. (2007). Relationships between income, subjective health, and caregiver burden in caregivers of people with dementia in group living care: A cross-sectional community-based study. *Int J Nurs Stud, 44*, 435-446.
- Arai, Y., Kumamoto, K., Washio, M., Ueda, T., Miura, H., & Kudo, K. (2004). Factors related to feelings of burden among caregivers looking after impaired elderly in Japan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Psychiatr Clin Neurosci, 58*(4), 396-402.
- Brazel, K., Bedard, M., & Willison, K. (2002). Correlates of health status for family caregivers in bereavement. *J Palliat Med, 5*(6), 849-855.
- Cho, M. H. (2002). A study on the burden of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ed elderly and related variables. *Studies of Appl Sci, 11*(1), 259-270.
- Cho, M. H., Choi, J. S., Kwon, O. H., & Kim, D. N. (2000). A study on the burden of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ed elderly and its sugges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ell-being of family care givers. *J Welf Aged, 9*(1), 33-65.
- Dijkstra, A., Sipsma, D., & Dassen, T. (1999). Predictors of

- care dependency in Alzheimer's disease after a two-year period. *Int J Nurs Stud*, 36(6), 487-495.
- Fitten, L. J. (2006). Editorial: Management of behavioral and psychiatric symptoms in dementia. *J Nurt Health Aging*, 10(5), 409.
- Jung, Y. J. (2007). *The research on the physical and mental burdens of the main supporters with senile dementia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ungji University, Seoul.
- Kil, Y. J. (2004). *Study on the care-burden of major supporter to the elderly who using dementia domiciliary welfare serv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Kim, J. S. (1999). A critical review and vision of family caregiving research on the demented elderly's in Republic of Korea. *J Korean Acad Nurs*, 29(6), 1419-1429.
- Kim, Y. E. (1999). *Effects of stress management training on the primary care-givers of dementia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S. O. (2002). *A study on families' supporting obligation toward senile-dementia patients, who use the day-time-care-center for old peop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hin University, Osan.
- Kim, K. T., & Lee, E. H. (1997).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family caregivers with senile dementia patients. *Soc Welfare Res*, 7(1), 193-213.
- Kim, J. S., & Lee, E. H. (2001). A review of the effects of respite care for patients with dementia and caregivers. *J Korean Acad Nurs*, 31(6), 1077-1087.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07, November). Population growth rate, population structure, dependency ratio, index of aging, median age, mean Age (National). <http://www.kosis.kr>
- Kwon J. D. (1994). *A study on the assessment of caregiver burden in caring for the demented elderly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E. S. (1998). A study on the burden of family caregivers with senile dementia. *J Welfare for the Aged*, 1(2), 211-239.
- Lee, I. S. (2002). *A study on the support burden for the demented elderly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 Lee H. J. (2006). The effect of caregiver's burden for the dementia elderly by the use of daycare center. *J Korean Gerontol Society*, 26(2). 329-346.
- Lee, Y. H., Gang, T. M., Lee, S. S., Kim, M. G., Ahn, D. S., Yoon, S. H., Jung, C., Bang, N. H., Lee, S. K., Shim, J. C., Kim, Y. K., & Kim, Y. H. (1998).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aring burdens of caregivers and the psychopathology of in-home demented elderlies, and the needs of caregivers for the social service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7(6), 1292-1305.
- Lee, A. S., & Kim H. G. (2003). Care-givers' attitude and determinants about the burden of the caring for senile dementia patients. *Health and Med Soc*, 13, 29-60.
- Lee, H. J., Kim, Y. S., Kim, K. R., Kim, J. S., & Seo, J. M. (2003).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family caregivers of older adults with dementia. *J Korean Acad Nurs*, 33(7), 936-944.
- Lee, H. S., & Lim, G. H. (2005).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Gyonggi: Bobmunsa.
- Ma, P. S. (1998). *A Study on the people in charge of demented-Especially people in the day care center or short stay serv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7, November). *2007 Guideline for the Elderly Health and Welfare Project in 2007*. <http://www.mohw.go.kr/user.tdf>.
- Polit, D., & Beck, C. (2004). *Nursing Research: Principles and Methods* (7th e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Philadelphia.
- Tack, B. B. (1991). *Dimensions and correlations of fatigues in older adults with rheumatoid arthrit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 Yoshitake, H. (1978). Three characteristics pattern of subjective fatigue symptoms, *Ergonomics*, 21(3), 231-233.
- You, K. S. (2001). A study on the care burden of family caregivers for senile dementia. *J Korea Community Health Nurs & Acad Society*, 15(1), 125-147.
- Zarit, S. H., Todd, P. A., & Zarit, J. M. (1986). Subjective burden of husbands and wives as caregivers: A longitudinal study. *Gerontol*, 26(3), 260-266.

Factors Influencing Care Burdens of Caregivers of Elders with Dementia who Request Dementia Domiciliary Welfare Services*

Lee, Younghee¹⁾ · Kim, Hwasoon²⁾ · Cho, Insook³⁾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Inha University

2)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Inha University

3)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Inha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which predict care burden perceived by caregivers of elders with dementia.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is descriptive survey were 92 caregivers who used one of six daycare centers located in Incheon.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composed of items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s and caregivers, care burden, caregiver fatigue, and functional status of the elders. **Results:**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s associated with care burden were age, gender, religion, and the presence of a spouse. Features of caregivers related to care burden were education, relationship with elderly, amount of rest, intention to care, monthly family income, and perceived family economic statu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care burden, fatigue of caregiver and functional status of the elders. In stepwi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were identified as caregiver fatigue, functional status of the elders, intention to care, relationship with the elders, amount of rest and elder's gender. Those variables explained 46% of variance of care burden. **Conclusion:** Functional status of elders and amount of rest were significant predictors and are supported by other previous studies. Future interventions for caregivers need to be focused on the slowing down of functional status of elders and increasing of number and length of caregiver's rest periods.

Key words : Dementia, Caregiver, Fatigue, Dependenc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HA UNIVERSITY Research Grant.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Hwasoon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253 Yonghyun-dong, Nam-gu, Incheon 402-751, Korea

Tel: 82-32-860-8208 Fax: 82-32-874-5880 E-mail: khs0618@inha.ac.kr